

# 경제 동향





## ■ 요약

■ 경기 생산/출하 · 재고 순환/소비/물가/  
외국인투자

■ 고용 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제조업생산 지난해 11월 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서울의 제조업생산 지수는 95.9(2000=100)로 지난해 11월 대비 4.7% 감소한 가운데 중공업은 15.2%, 경공업은 0.7% 각각 감소함</li> </ul> </li> <li>○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난해 11월 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2714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9.1% 증가하고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4.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7.7% 증가함</li> </ul> </li> <li>○ 서울의 소비자 물가 지난 11월 대비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대비 0.3% 상승하여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됨</li> </ul> </li> </ul>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중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0.6% 감소한 4,907천명으로,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1.3%)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취업자 수는 감소함</li> </ul> </li> <li>○ 서울의 실업률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대비 0.3%p 하락한 4.3%로, 최근 5년간 12월 평균 실업률(4.7%)보다 0.4%p 낮은 수준임</li> </ul> </li> </ul>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11월 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1,126천<sup>2</sup>로 주거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117.4% 증가함</li> </ul> </li> <li>○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11월 대비 3.0% 상승하여 지난 11월(4.8%)에 비해 상승률이 1.8%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됨</li> <li>- 12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0.6% 상승하여 지난 10년간 12월 평균 증감률(-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li> </ul> </li> </ul>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신설법인 수 지난 11월 대비 감소, 부도업체 감소, 어음부도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11월 대비 6.1%(106개) 감소한 1,623개임</li> <li>- 12월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지난 11월과 동일하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11월 보다 16개 감소한 58개로, 1~11월까지 평균 75.7개를 큰 폭으로 하회함</li> </ul> </li> <li>○ 국고채(3년, CD(91일) 유통수익률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중 국고채와 CD 유통수익률은 기준을 인상 및 총액한도대출 축소 이후 상승함</li> </ul> </li> <li>○ 장·단기 금리차 소폭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중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가 지난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콜금리가 상승함 따라 12월말 현재 0.32%p로, 지난 11월에 비해 소폭 하락함</li> </ul> </li> <li>○ KOSPI 지수 지속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중 KOSPI 지수는 12월 중반 이후 해외증시호조, 연말배당기대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월말 미국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배당락이 반영되면서 소폭 하락하여 지난 11월 대비 2.25p(2.6%) 상승한 1,434.46p로 마감함</li> </ul> </li> </ul>

## | 생 · 산 |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지난해 11월 대비 감소

## ■ 전국 산업생산 견실한 신장세

- 2006년 11월중 전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 높은 증가율(11.8%)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지난해 11월 대비 6.3% 증가함
- 이는 지난 10월에 이어 반도체관련 업종 등의 수출 호조(반도체생산 증가 22.4%)가 산업생산 증가를 주도한 것에 기인함
- 업종별로는 지난해 대비 영상음향통신, 섬유제품, 기타제조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에서 증가함

##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

- 2006년 11월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95.9(2000=100)로 지난해 11월 대비 4.7%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에서 증가한 반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 감소함

## ■ 서울 중공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다소 둔화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11월 대비 15.2% 감소하여 감소세가 다소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기타전기기계(43.6%)를 제외한 화합물 및 화학제품(-80.9%), 가구 및 기타제품(-46.5%), 고무 및 플라스틱(-35.0%) 등 중공업부문의 대부분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11월 대비 0.7% 감소하여 지난 10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됨
- 세부업종별로 가죽·가방 및 신발(22.1%), 의복 및 모피(10.6%) 등이 증가하였고 음식료품(-12.6%), 인쇄출판(-4.5%) 등이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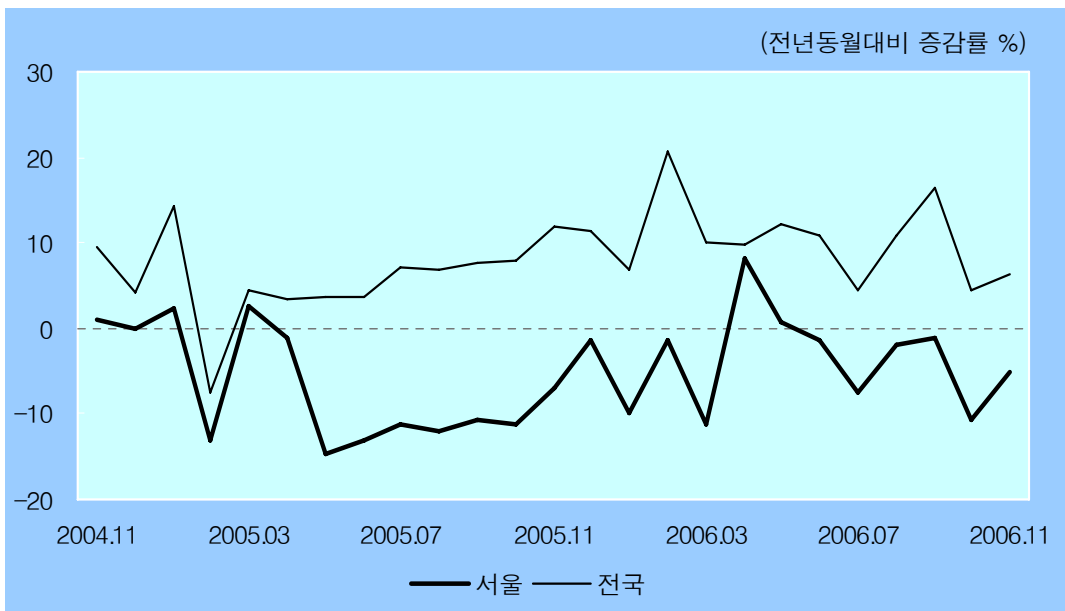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1월	7월	8월	9월	10월p	11월p	
전년 동월 비	전국	11.8 (3.9)	4.5 (-3.7)	10.9 (3.7)	16.5 (3.1)	4.5 (2.5)	6.3 (-1.4)
	서울 (제조업)	-7.6 (3.7)	-7.9 (-5.4)	-2.5 (2.0)	-1.9 (8.8)	-11.0 (-4.1)	-4.7 (10.5)
	중공업	-26.3 (10.3)	-24.2 (-17.6)	-18.2 (3.8)	-16.2 (2.4)	-20.3 (-8.7)	-15.2 (17.4)
	경공업	2.8 (1.4)	-0.4 (-0.4)	4.7 (1.3)	4.9 (11.1)	-6.9 (-2.6)	-0.7 (8.2)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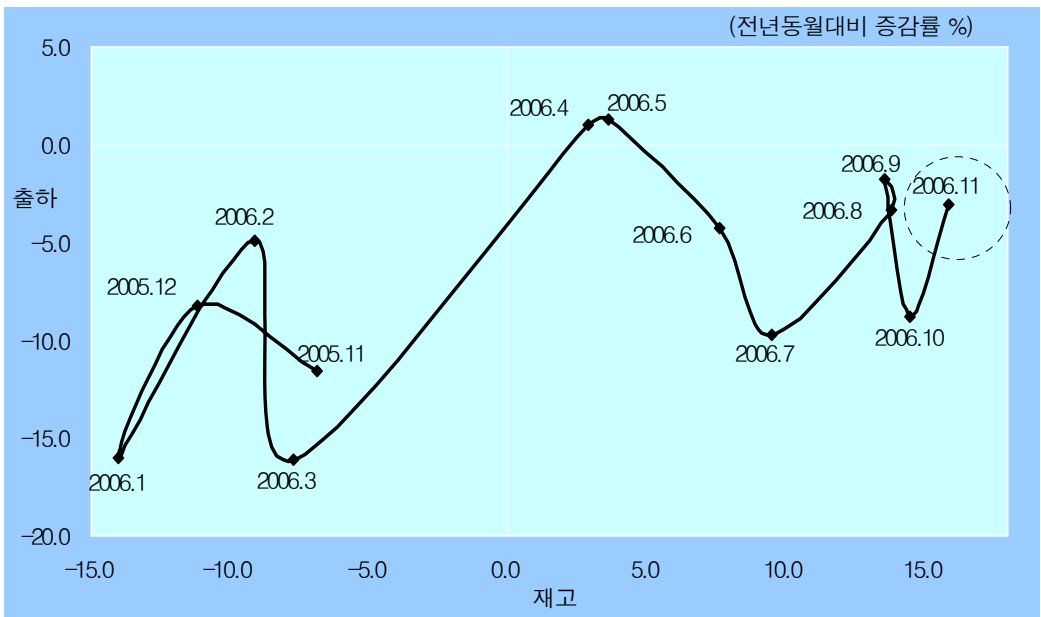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 증가

■ 서울 제조업부문 지난해 11월 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11월 대비 3.1% 감소하여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재고는 지난해 11월 대비 15.9% 증가하여 지난 4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 2006년 11월중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는 감소세가 다소 큰 폭으로 둔화되었고 재고는 지난 10월과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임
- 2006년 10월은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재고가 증가세를 나타내어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큰 폭으로 하락

- 2006년 11월중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1.4%로 지난 10월과 비슷한 수준이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지난 10월 보다 16.1%p 하락한 160.8%를 나타냄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160.1%로 지난 10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경공업부문은 지난 10월 대비 19.5%p 크게 하락한 159.1%로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냄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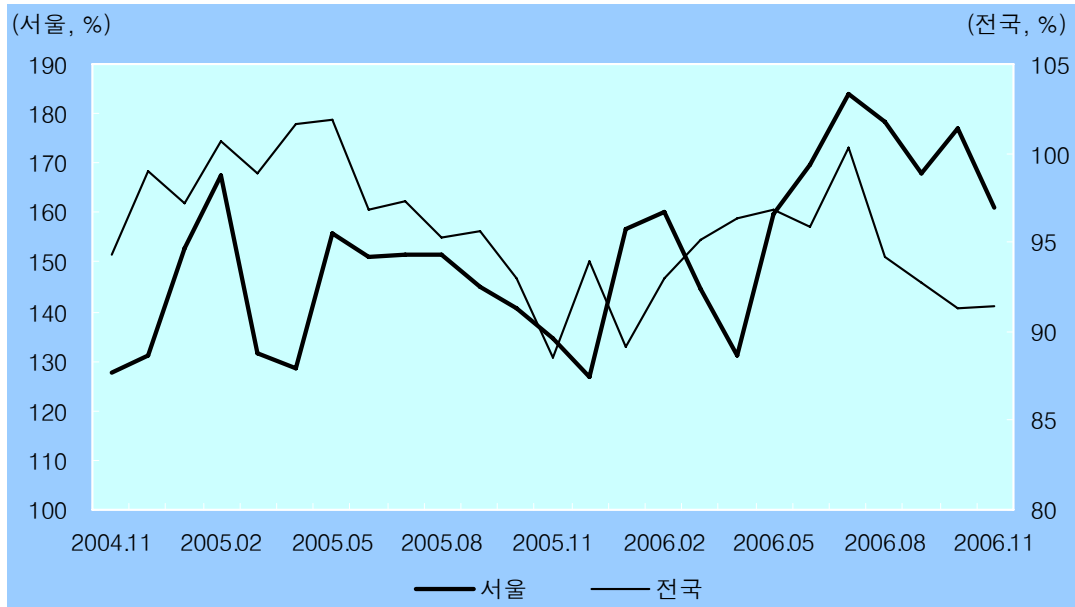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1월	7월	8월	9월	10월p	11월p	
재고율	전국	88.5	100.4	94.2	92.7	91.3	91.4
	서울 (제조업)	134.4	183.7	178.1	167.8	176.9	160.8
	중공업	120.1	169.1	143.1	148.6	164.4	160.1
	경공업	138.4	186.1	189.1	171.9	178.6	159.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로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난해 11월 대비 증가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소폭 둔화

- 2006년 11월중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7907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7.8% 증가하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백화점은 가전제품, 의복,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지난해 11월에 비하여 1.9% 증가하였고, 대형마트는 가전제품, 의복, 주방용품 등의 판매가 늘어 지난해 11월 대비 8.4% 증가함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확대

- 2006년 11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2714억 원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하여 백화점 판매액은 9.1%, 대형마트 4.9%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7% 증가함
- 백화점부문의 경우 기온 하강에 따른 겨울의류 판매와 쌍춘년 영향으로 인한 혼수용품(가전, 의복, 가방 등)의 판매증가에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확대됨
- 대형마트부문은 가정용품, 잡화 등에서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신선식품 등 식품 부문의 매출이 하락하여 증가세가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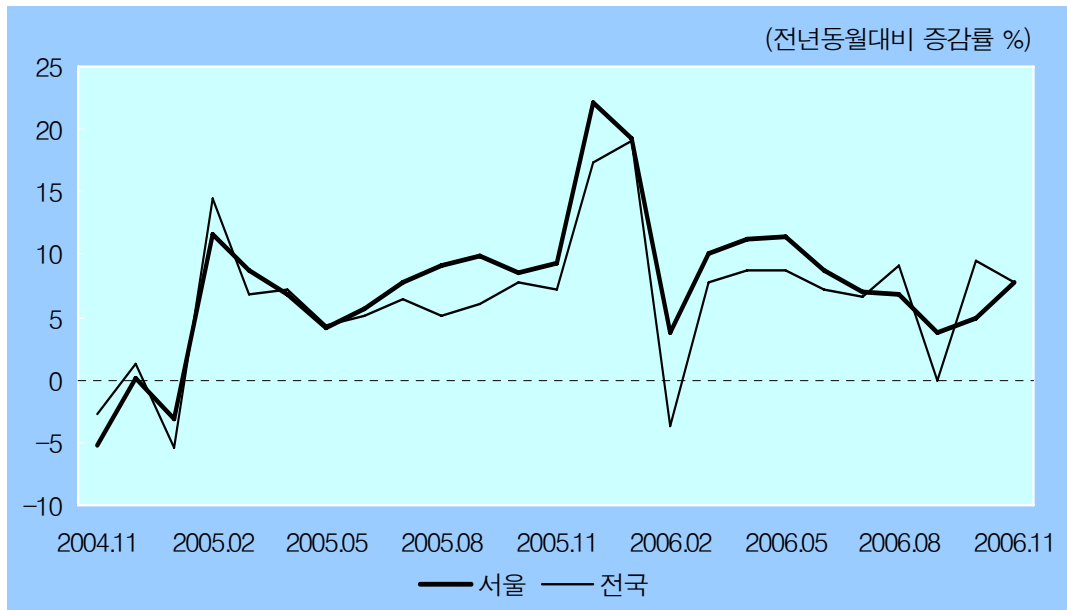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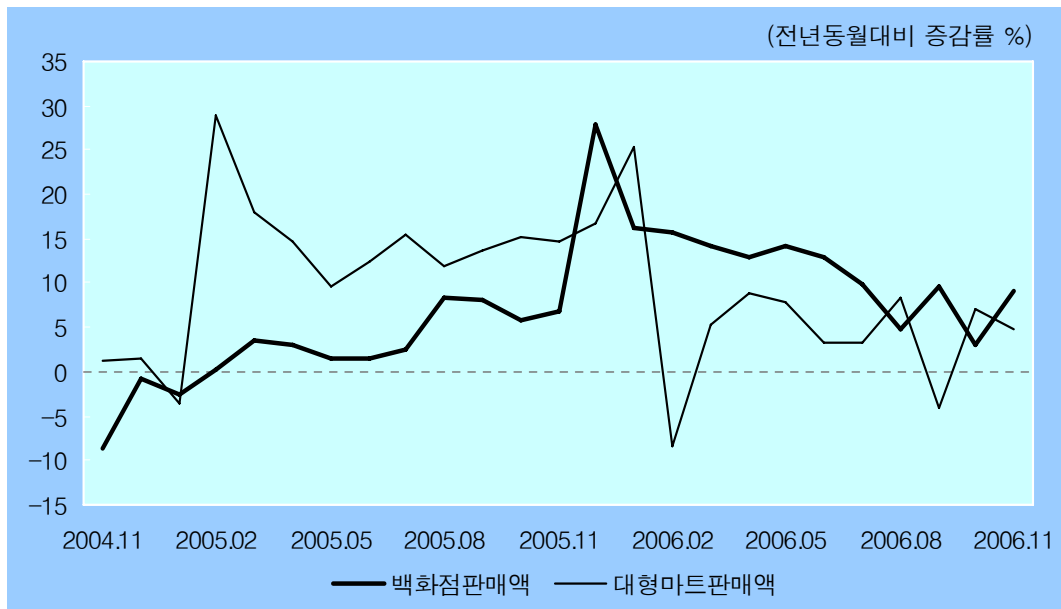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11월	7월	8월	9월	10월p	11월p	
판매액	전국	3,517 (7.2)	3,632 (6.6)	3,356 (9.1)	3,720 (-0.1)	3,973 (9.5)	3,791 (7.8)
	서울	1,180 (9.3)	1,198 (7.1)	1,069 (6.8)	1,261 (3.7)	1,319 (4.9)	1,271 (7.7)
	백화점	682 (6.9)	653 (9.8)	530 (4.7)	712 (9.7)	782 (3.1)	744 (9.1)
	대형마트 (할인점)	472 (14.2)	507 (3.4)	502 (8.3)	513 (-4.2)	504 (7.1)	496 (4.9)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지난 11월 대비 소폭 상승

##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지난 11월 대비 소폭 상승

- 2006년 12월중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11월 대비 0.3% 상승하여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됨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0.3%)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2.5%), 집세(0.2%), 공공서비스(0.2%), 개인서비스(0.2%) 부문이 상승한데 기인함
- 2006년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 2.2% 상승하여 지난 5년간 연평균물가상승률 3.4%를 하회함
- 2006년 소비자 물가를 비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소폭(-0.1%) 하락하였으나 석유류(6.5%)와 도시가스, 납입금, 학원비 등 공공(3.5%) 및 개인서비스(3.0%) 부문이 지난해 대비 상승함

## ■ 1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지난 11월 대비 소폭 상승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11월 대비 0.3% 상승하여 전국과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됨
- 비목별로 보면 지난달에 하락했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9%)가 상승하였으며, 이어 외식 및 숙박(0.7%), 주거 및 수도광열(0.3%), 보건의료(0.2%), 교통(0.2%), 교양 및 오락(0.2%), 자동차 보험료 등 기타잡비(0.2%),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0.1%)이 상승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월 비	전국	0.3 (2.6)	0.4 (2.4)	0.6 (2.7)	0.3 (2.5)	-0.5 (2.2)	-0.5 (2.1)	0.3 (2.1)	
	서울	0.3 (2.4)	0.3 (2.1)	0.6 (2.5)	0.2 (2.3)	-0.3 (2.1)	-0.3 (2.1)	0.3 (2.1)	
	상품 성질별	상품	0.5 (3.5)	0.2 (1.4)	1.4 (2.3)	0.1 (1.3)	-0.8 (0.8)	-1.0 (0.9)	0.4 (0.8)
		서비스	0.2 (1.6)	0.4 (2.6)	0.0 (2.5)	0.3 (2.8)	0.1 (2.9)	0.0 (2.7)	0.2 (2.7)
	생활물가	0.3 (4.0)	0.3 (3.0)	0.8 (3.4)	0.5 (3.2)	-0.5 (2.9)	-0.7 (2.6)	0.4 (2.7)	
	신선식품	3.6 (6.8)	1.0 (-2.9)	12.0 (4.7)	1.7 (1.3)	-2.7 (-0.2)	-6.8 (1.2)	3.0 (0.6)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상품부문 서비스부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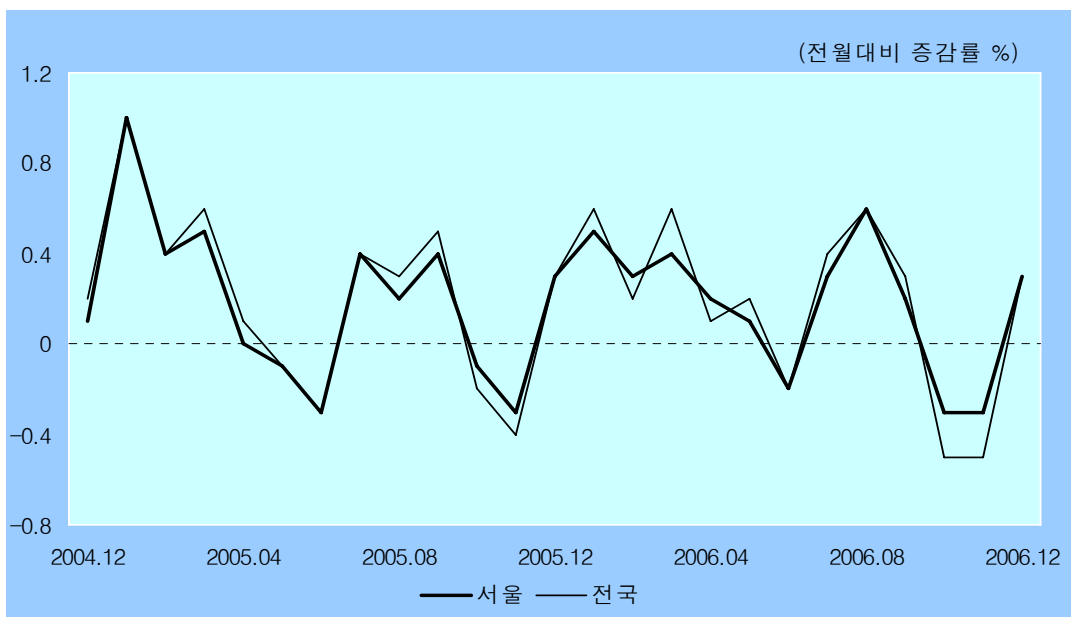
- 2006년 12월중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에 비해 큰 폭(1.3%)으로 상승함에 따라 0.4%의 상승률을 나타냄
- 2006년 12월중 서비스 부문을 보면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0.4%)와 공동주택관리비 등 집세(0.3%)가 상승함에 따라 0.2%의 상승률을 나타냄

###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소폭 상승

- 2006년 12월중 생활물가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대비 0.4%(전국: 0.4%) 상승함
- 2006년 12월중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대비 3.0%(전국:4.7%)상승함

### ■ 2006년 서울의 소비자 물가 2000년 이후 연평균물가상승률 하회

- 2006년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3.4%)보다 1.3%p 낮은 2.1% 상승률을 나타내 2% 대의 안정세를 유지함
- 교육(4.8%), 교통(4.0%), 개인용품 등 기타잡비(4.0%)에서 높은 상승을 나타낸 반면에 교양·오락(-2.0%), 통신(-1.1%)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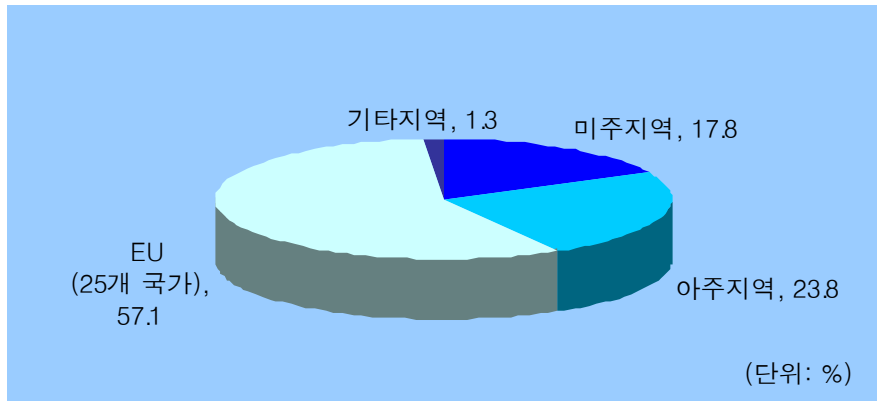
※ 통계청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0년에서 2005년 기준년으로 물가지수를 개편하였으며,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COICOP' 분류체계를 따라 10대 분류에서 12대 분류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경제 2월호부터 이 체계를 반영한 물가지료를 게재함

## | 외 · 국 · 인 · 투 · 자 |

## 서울의 외국인 투자금액 지난해 4/4분기 대비 감소

- 2006년 4/4분기 전국의 외국인투자 금액 감소
  - 2006년 4/4분기 전국의 외국인투자 건수는 지난해 3/4분기에 비해 30.2% 감소한 781건을 기록함
  - 2006년 4/4분기 전국의 외국인투자 금액은 지난해 3/4분기에 비해 4.2% 감소한 3,714백만 불을 기록함
  
- 2006년 전국의 외국인투자 동향
  - 2006년 전국의 외국인투자(신고기준)는 2005년 대비 2.9% 감소한 11,123백만 불을 기록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 화학 분야의 투자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37.1% 증가한 423백만 불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지난해 대비 20.4% 감소한 664백만 불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EU가 2년 연속 최대 투자권역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대비 4.1% 증가(498백만 불)하였고, 일본은 지난해 대비 12.2% 증가(211백만불)한 반면 미국은 36.8% 감소(170백만불)함
  
- 2006년 4/4분기 서울의 외국인투자 금액 감소
  - 2006년 4/4분기 서울의 외국인투자 건수는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31.5% 감소한 319건, 투자 금액은 지난해 4/4분에 비해 14.3% 감소한 2,326백만 불을 나타냄
  - 외국인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88.0%, 제조업이 1.7%로 나타나 지난해 4/4분기의 90.8%, 8.7%에 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은 감소함
  
- 2006년 서울의 외국인투자 동향
  - 2006년 서울의 외국인투자(신고기준)는 2005년 대비 6.5% 감소한 6,439백만 불을 기록함
  - 산업별로 제조업은 전기·전자부문 등의 투자가 감소하여 지난해 대비 53.3% 감소한 338

- 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서비스업은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지난해 대비 8.3% 감소한 5,810백만 불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EU만 투자가 확대되어 지난해 대비 18.5%(680백만불) 증가한 반면 일본은 지난해 대비 264.0%(908백만불), 미국은 68.0%(722백만불) 감소함



<그림> 외국인투자 국가별 현황

<표>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불, %)

구분	2005. 4/4		2006. 4/4		증감률		2005		2006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1,017	3,870	781	3,714	-30.2	-4.2	3,656	11,563	3,098	11,233	-18.0	-2.9
서울	466	2,714	319	2,326	-31.5	-14.3	1,620	6,855	1,229	6,439	-31.8	-6.5
제조업	55	235	37	39	-32.7	-83.4	199	518	149	338	-33.6	-53.3
서비스업	403	2,465	278	2,047	-31	-17	1,398	6,291	1,065	5,810	-31.3	-8.3
도·소매(유통)	207	118	99	75	-52.2	-36.4	755	459	460	329	-64.1	-39.5
음식·숙박	12	2	19	1,100	58.3	54900	43	7	42	1,111	-2.4	99.4
운수·창고(물류)	15	145	10	62	-33.3	-57.2	34	151	55	501	38.2	69.9
통신	7	565	2	42	-71.4	-92.6	52	655	8	50	-500	-1200
금융·보험	41	1,294	35	385	-14.6	-70.2	120	3,700	129	2,907	7.0	-27.3
부동산·임대	16	55	22	23	37.5	-58.2	61	263	55	220	-10.9	-19.5
비즈니스서비스업	78	259	67	168	-14.1	-35.1	226	822	249	467	9.2	-76.0
문화·오락	18	25	13	189	-27.8	656	47	163	42	218	-11.9	25.2
공공기타서비스	9	2	11	2	22.2	0	60	71	25	7	-140	-9143
기타	8	14	4	240	-50	16143	22	45	13	291	-69.2	84.5

주: 투자금액 및 금액비율은 반올림 수치이며 신고기준임  
 자료: 산업자원부,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 | 취 · 업 · 자 |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감소

## ■ 전국의 취업자 수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증가

- 2006년 12월중 전국의 취업자는 22,989천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3%(290천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3%(13,401천명), 여자는 41.7%(9,588천명)로 남자가 더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비 증가율은 남자(1.1%)보다 여자(1.5%)가 더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2.8%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6.4% 증가하여 지난해 동월대비 고령층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전국의 취업자는 23,151명을 지난해 대비 1.3% 증가하여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감소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취업자는 4,907천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0.6%(-32천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지난 11월에 이어 전국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에 서울의 취업자수는 감소하여, 서울의 고용사정이 전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6.9%(2,792천명), 여자는 43.1%(2,115천명)로 지난해 12월 대비 남자는 1.5% 감소한 반면에 여자는 0.4% 증가함
- 전체 취업자의 21.3%(1,047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5.3% 감소하여 감소폭이 소폭 축소됨
- 전체 취업자의 14.8%(728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6.3%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특히 60세 이상에서 큰 폭(13.0%)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는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06년 서울시 취업자 수는 4,906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0.3% 증가하여 2003년 이후(2004년:1.6%, 2005년:1.2%)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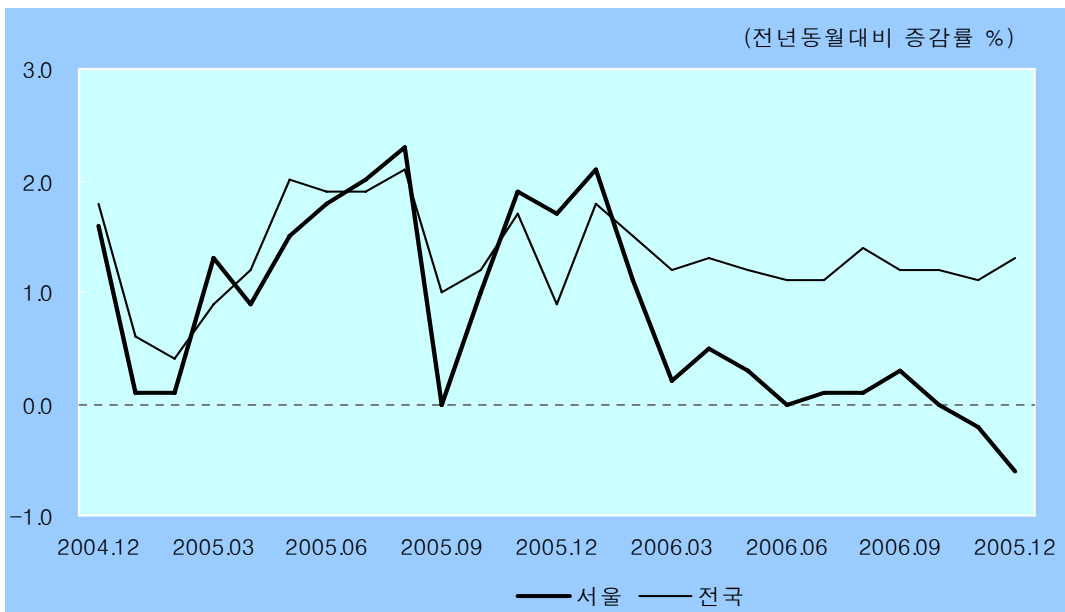
<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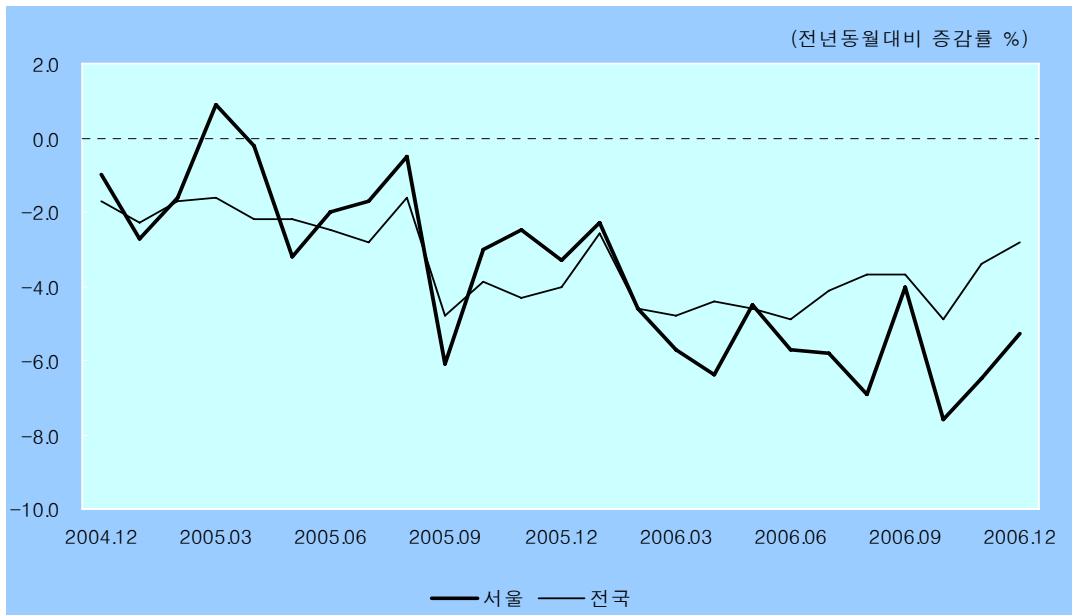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업자	전국	0.9 (-2.1)	1.1 (-0.2)	1.4 (-1.2)	1.2 (0.7)	1.2 (0.6)	1.1 (0.0)	1.3 (-2.0)
	서울	1.7 (-0.4)	0.1 (-0.5)	0.1 (-1.1)	0.3 (0.6)	0.0 (0.5)	-0.2 (0.6)	-0.6 (-0.8)
	남자	1.3 (-0.8)	0.7 (0.4)	0.0 (-1.3)	0.4 (0.2)	-0.3 (0.0)	-1.6 (0.1)	-1.5 (-0.7)
	여자	2.4 (0.1)	-0.7 (-1.7)	0.3 (-0.7)	0.2 (1.1)	0.4 (1.3)	1.7 (1.3)	0.4 (-1.1)
청년층 취업자	전국	-4.0 (0.0)	-4.1 (3.3)	-3.7 (-3.4)	-3.7 (-1.4)	-4.9 (-0.6)	-3.4 (1.0)	-2.8 (0.6)
	서울	-3.2 (-0.2)	-5.8 (1.1)	-6.9 (-3.3)	-4.0 (0.7)	-7.6 (-2.3)	-6.5 (1.4)	-5.3 (1.1)
고령층 취업자	전국	2.9 (-7.8)	3.8 (-2.3)	4.8 (-0.5)	4.1 (1.9)	6.1 (2.7)	6.3 (-1.5)	6.4 (-7.8)
	서울	6.4 (-0.7)	4.6 (-2.5)	4.9 (0.4)	2.3 (1.5)	8.2 (5.7)	7.4 (0.3)	6.3 (-1.8)
	55-59세	3.3 (0.6)	2.0 (-1.9)	0.4 (-1.2)	2.7 (2.8)	3.4 (2.0)	2.6 (1.3)	-1.6 (-3.4)
	60세 이상	9.1 (-1.9)	6.9 (-3.0)	8.9 (1.9)	1.7 (0.1)	11.9 (8.8)	11.4 (-0.5)	13.0 (-0.5)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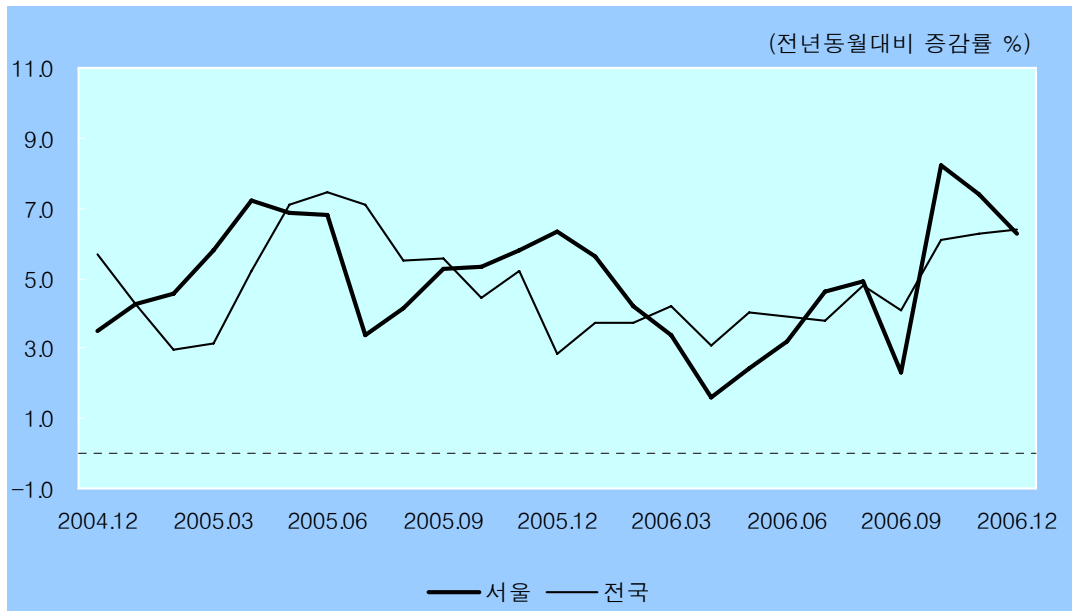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수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

- 2006년 12월중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7.3%)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9.1%), 제조업(14.6%), 전기·운수·통신·금융업(10.8%), 건설업(8.0%)의 순임
- 지난해 12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은 증가한 반면에, 제조업(-6.8%), 건설업(-3.7%), 도소매·음식숙박업(-1.2%), 전기·운수·통신·금융업(-0.3%)은 감소함
- 2006년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3%), 전기·운수·통신·금융업(0.4%), 건설업(0.3%)의 취업자 수는 증가함
- 반면 제조업(-4.8%), 도소매·음식숙박업(-0.5%)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함

#### ■ 서비스·판매 종사자 및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수 증가

- 2006년 12월중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29.8%)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7.9%), 서비스·판매 종사자(26.2%), 사무종사자(16.1%) 순임
- 지난해 12월 대비 서비스·판매 종사자(1.7%), 전문·기술·행정관리자(0.4%)는 증가하였으며,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3.0%), 사무종사자(-2.1%)는 감소함
- 2006년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전문·기술·행정관리자(1.9%), 사무종사자(1.0%)는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판매 종사자(-1.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1%)는 감소함

#### ■ 지난해 12월 대비 임금근로자수 증가, 비임금근로자수 감소

- 2006년 12월중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2.8%(3,572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7.2%(1,335천명)로 지난해 12월 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0.2%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0.1%) 증가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2.6%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2월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2.3%)와 일용근로자(-1.3%)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4.1%, 자영업자는 0.3% 감소하여 무급가족종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함
- 2006년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임금근로자는 1.5% 증가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는 2.7% 감소하여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별	· 제조업	-1.3 (-1.0)	-4.9 (2.4)	-3.5 (-2.6)	-4.1 (0.6)	0.0 (5.4)	-6.1 (-6.6)	-6.8 (-1.8)
	SOC 및 기타서비스업	2.2 (-0.3)	1.1 (-0.9)	0.7 (-0.8)	1.1 (0.6)	0.0 (-0.3)	0.9 (2.0)	0.5 (-0.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5.7 (-1.8)	1.6 (-1.6)	3.5 (0.0)	2.3 (1.5)	1.5 (0.5)	2.5 (2.8)	3.1 (-1.2)
	· 도소매·음식숙박	-0.7 (1.4)	1.3 (-0.4)	-1.2 (-1.6)	-0.8 (-0.2)	-1.8 (-0.6)	-1.2 (0.6)	-1.2 (1.4)
	· 전기·운수·통신·금융	1.2 (0.4)	1.5 (1.6)	1.9 (0.0)	1.0 (-2.8)	-0.4 (-1.0)	0.3 (4.0)	-0.3 (-0.2)
	· 건설업	-0.7 (-0.6)	-2.2 (-2.6)	-5.4 (-2.4)	3.1 (4.4)	0.1 (-2.0)	1.5 (0.6)	-3.7 (-5.7)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0 (0.1)	1.8 (-0.5)	1.7 (-1.0)	2.9 (1.6)	1.4 (-0.6)	2.8 (1.6)	0.4 (-2.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0.6 (-1.5)	-0.7 (2.1)	-1.9 (-3.4)	-1.1 (1.4)	1.6 (3.0)	-1.0 (-1.9)	-3.0 (-3.5)
	서비스·판매종사자	0.0 (-0.6)	-1.4 (-4.5)	-0.2 (1.3)	-2.1 (-2.1)	-3.9 (-0.8)	-2.5 (1.3)	1.7 (3.7)
	사무종사자	8.1 (0.9)	1.0 (2.2)	1.0 (-0.9)	1.7 (1.9)	0.4 (0.1)	-0.9 (2.4)	-2.1 (-0.3)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2.7 (-0.2)	1.6 (1.8)	1.3 (-2.6)	1.2 (0.7)	0.8 (0.8)	1.0 (0.5)	0.1 (-1.1)
	비임금근로자	-0.7 (-1.0)	-3.9 (-6.3)	-3.0 (3.2)	-2.0 (0.4)	-2.0 (-0.3)	-3.4 (0.7)	-2.6 (-0.2)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 서울의 실업률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하락

#### ■ 전국의 실업률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하락

- 2006년 12월중 전국의 실업률은 3.3%(실업자 784천명)로 지난해 12월 대비 0.2%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는 각각 3.7%(실업자 509천명), 2.8%(실업자 275천명)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남자는 0.1%p, 여자는 0.3%p 낮음
- 2006년 전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대비 0.2%p 하락한 3.5%(실업자 827천명)임

####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실업률 지난해 12월 대비 소폭 하락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4.3%(실업자 220천명)로 지난해 12월 대비 0.3%p 감소함
- 12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최근 5년간 12월 평균 실업률 4.7%보다 0.4%p 낮은 수준이며, 전국 실업률을 1.0%p 상회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대비 0.1%p 낮은 5.0%, 여자는 0.7%p 낮은 3.3%로 여자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
- 남자의 실업률과 여자의 실업률의 차는 7월 이후(7월:0.2%p, 8월:0.4%p, 9월:0.8%p, 10월:1.0%p, 11월:1.3%p, 12월:1.7%p) 꾸준히 확대되어 옴

#### ■ 2006년 서울의 실업률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

- 2006년 서울의 실업자는 지난해 대비 0.3%p 하락한 4.5%(실업자 232천명)로 지난 5년간 평균 실업률(4.6%)을 하회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지난해보다 0.1%p 하락한 4.8%, 여자는 0.5%p 하락한 4.1%로,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의 실업률을 상회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대비 0.2%p 하락한 8.8%로, 2001년 이후(2002년:8.3%, 2003년:8.8%, 2004년:9.0%, 2005년:9.0%) 지속되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3.2	3.4	3.4	3.2	3.3	3.2	3.3
서울		4.6	4.2	4.4	4.2	4.6	4.3	4.3
성 별	남자	5.1	4.3	4.6	4.5	5.0	4.9	5.0
	여자	4.0	4.1	4.2	3.7	4.0	3.6	3.3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11월 대비 증가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11월 대비 증가**
  - 2006년 11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10,531천㎡로 지난해 11월 대비 26.0% 증가함
  -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허가면적(-2.4%)을 제외하고 상업용(85.1%), 문교 및 교육(33.0%), 공업용(19.4%) 모두 증가함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주거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증가**
  - 2006년 11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1,126천㎡로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허가면적은 지난해 11월 대비 117.4% 증가함
  - 지난 2개월간 지난해 동월 대비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됨
  - 전체 건축허가면적의 12.4%를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단독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면적과 동일하나 연립(5.5%) 및 아파트(3.0%)가 소폭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3.7% 증가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기타(-86.4%)를 제외한 공업용(337.5%), 상업용(121.4%), 문교 및 사회(70.7%) 허가면적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117.9%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 지난해 11월 대비 감소**
  - 2006년 11월중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449,423백만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54.1% 감소함
  - 1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4.9%를 차지하며, 전국이 지난해 11월 대비 44.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감소함
  - 발주자별로 보면 재개발 주택, 사무실, 학교·병원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61.1% 감소하였으며, 학교·관공서, 발전·송전·배전, 토지조성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22.9%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71.7%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62.6%가 감소한 반면 토목 부문에서 68.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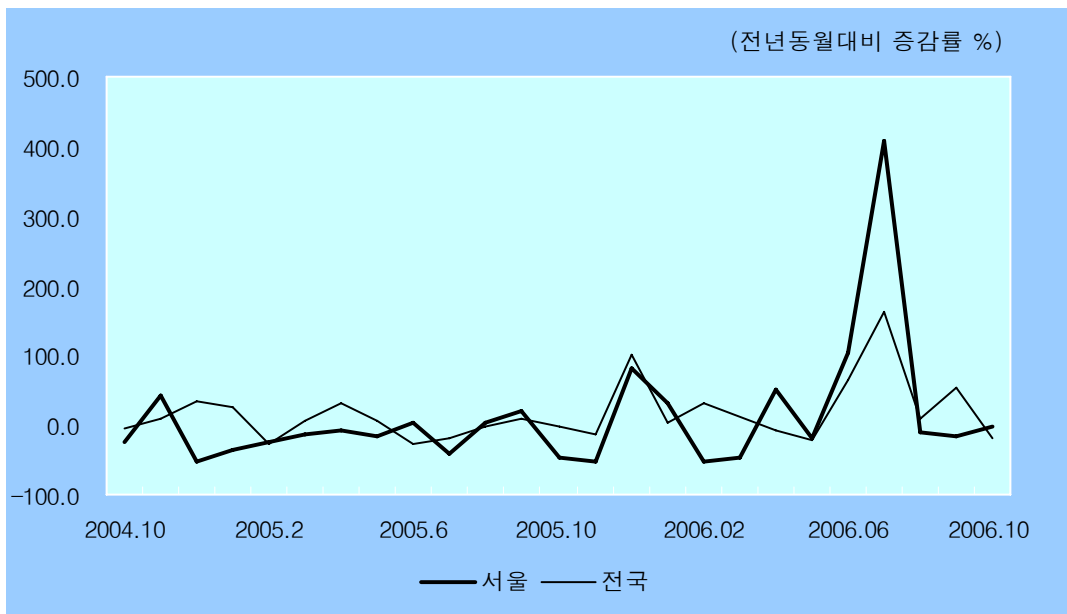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8,355	21,080	8,502	11,109	7,353	10,531	26.0	(43.2)	
서울	610	3,078	692	775	518	1,126	84.5	(117.4)	
주거용	소계	135	596	113	219	66	140	3.7	(112.1)
	단독	13	23	10	14	9	13	0.0	(44.4)
	연립	55	128	18	49	47	58	5.5	(23.4)
	아파트	67	436	85	156	11	69	3.0	(527.3)
비주거용	소계	475	2,481	579	556	452	985	107.4	(117.9)
	상업	370	1,662	430	284	378	819	121.4	(116.7)
	공업	8	71	34	143	5	35	337.5	(600.0)
	문교/사회	75	626	111	87	67	128	70.7	(91.0)
	기타	22	122	3	42	2	3	-86.4	(50.0)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기타는 공업용, 공공용 포함,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소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건설교통부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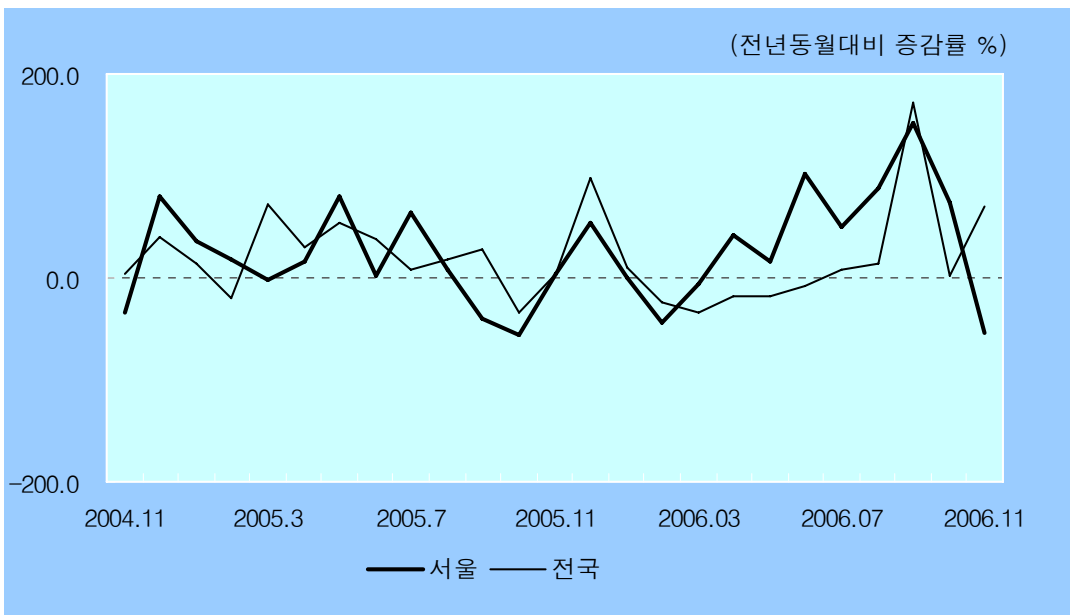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5,438.8	7,291.3	5,910.2	10,223.2	5,438.8	9,205.3	69.3	(69.3)	
서울	979.7	1,113.9	870.1	1,316.2	1,273.6	449.4	-54.1	(-64.7)	
발주자별	공공	229.8	304.4	72.4	596.8	482.2	177.2	-22.9	(-63.3)
	민간	700.5	808.5	512.0	517.0	791.4	273.2	-61.0	(-65.5)
공종별	건축	861.6	1,082.4	855.6	1,205.4	1,205.3	322.3	-62.6	(-73.3)
	토목	74.2	31.2	12.0	106.0	67.0	124.6	67.9	(86.0)

주: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소폭 둔화

- 2006년 12월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1.9% 상승하여 추석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상승세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의 11.15 부동산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데 기인함
- 그러나 뉴타운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여전히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며 상승하였음
- 지난달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2월 평균상승률(-0.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11.6% 상승함

##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3.0% 상승하여 지난 11월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됨
-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난 11월의 급격한 매매가격 상승이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나타냄
- 그러나 올해 평균 상승률이 1.5%이며, 지난 10년간 평균 12월 상승률이 0.1%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보다 1.1%p 높은 수준으로 지난 11월(1.7%p)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소폭 축소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3.8%, 강남은 2.2% 상승하여 강북이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24.1%, 연립주택 14.2%, 단독주택 11.4% 상승하여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18.9%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14.8%, 강남은 22.7% 상승함

■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구로구

- 지난 11월에 이어 노원구(9.4%)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2배 이상 상승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어 구로구(4.3%), 용산구(3.9%), 도봉구(3.6%), 성북구(3.6%), 강북구(3.5%), 서대문구(3.2%)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종로구(0.6%), 서초구(1.1%), 은평구(1.3%), 양천구(1.5%), 관악구(1.9%), 동작구(1.9%)에서 2.0%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2006년 주택 매매가격의 주요상승지역은 양천구(31.7%), 강서구(26.0%), 용산구(25.5%), 노원구(21.4%), 강남구(24.5%), 강동구(22.6%), 동작구(22.8%), 서초구(23.2%), 송파구(24.25), 영등포구(20.8%)로 용산구,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강남 지역임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3.7% 상승하였으며, 강북은 5.7%, 강남은 2.4% 상승하여 강북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지난 11월에 비해 상승폭이 1/2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구별로 보면 노원구(10.5%)가 10.0% 이상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도봉구(4.7%), 강북구(4.6%), 성북구(4.0%)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서초구(1.5%)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양천구(1.6%), 송파구(1.9%), 종로구(1.9%)에서 2.0%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12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3.4%(56만원)상승한 1,703만원으로 지난 11월에 비해 상승폭이 2.7%p 축소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동구이며, 반면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의 1/2 이하인 구는 중랑구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0.2	0.2	0.2	0.5	1.3	3.1	1.9 (11.6)	
서울	0.4	0.3	0.4	0.8	2.0	4.8	3.0 (18.9)	
아파트	0.5	0.3	0.3	0.6	2.2	6.2	3.7 (24.1)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1	0.4	0.5	0.7	1.5	4.1	3.8 (14.8)
	강남	0.7	0.3	0.2	0.9	2.3	5.4	2.2 (22.7)

주: 전월대비 증감률, ( )안은 2005년 12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2006년 12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0.6% 상승하여 상승세가 지속됨
-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물량 부족과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됨
- 2006년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해 대비 6.5% 상승함

##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0.6%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난 11월에 비해 상승폭은 소폭(0.8%p) 축소됨
- 일반적으로 11월, 12월은 연중 가장 비수기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12월은 지난 10년간 평균 12월 증감률(-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0.8%, 강남은 0.5% 상승하여 지난 8월 이후로 강북의 상승률이 강남을 상회함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0.8%, 연립주택 0.8%, 아파트 0.6% 상승하여 단독 및 연립 주택이 아파트의 상승률을 상회함
- 2006년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대비 9.8% 상승하였으며, 특히 아파트는 11.5%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0.2	0.1	0.2	0.8	1.0	1.0	0.6 (6.5)
서울	0.2	0.2	0.4	1.3	1.4	1.6	0.6 (9.8)
아파트	0.4	0.2	0.4	1.2	1.7	1.7	0.6 (11.5)
지역별							
강북	0.1	0.2	0.6	1.3	1.6	1.6	0.8 (9.6)
강남	0.4	0.2	0.2	1.2	1.3	1.6	0.5 (10.1)

주: , ( ) 2005 12 | 대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주요 상승지역은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강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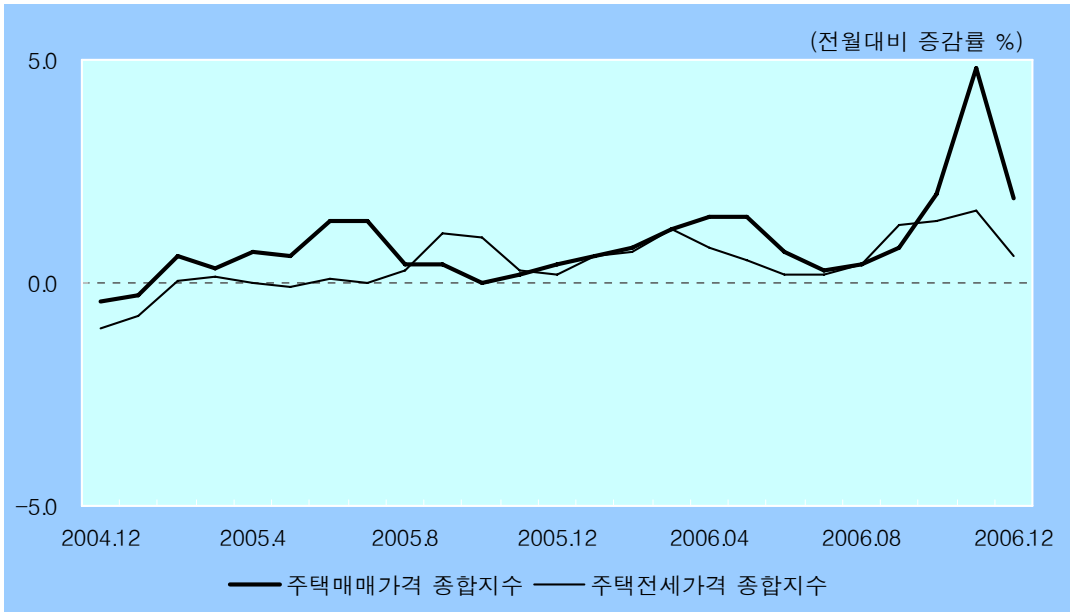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1.6%), 은평구(1.4%), 동대문구(1.3%), 구로구(1.2%), 중구(1.2%), 중랑구(1.1%), 강남구(1.0%)에서 지난 11월 대비 1.0% 이상 상승함
- 대부분 강북 지역에서 전세가격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률을 나타냄
- 반면 양천구(0.2%), 종로구(0.2%), 노원구(0.3%), 동작구(0.3%), 서초구(0.3%), 송파구(0.3%), 영등포구(0.3%), 용산구(0.3%), 관악구(0.4%)에서 0.5%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냄
- 지난해에 비해 은평구(17.0%), 강서구(14.9%), 노원구(13.7%), 영등포구(12.9%), 양천구(12.0%), 강남구(11.5%), 광진구(11.4%), 구로구(10.4%), 중랑구(10.1%)는 10.0% 이상의 높은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을 나타냄

###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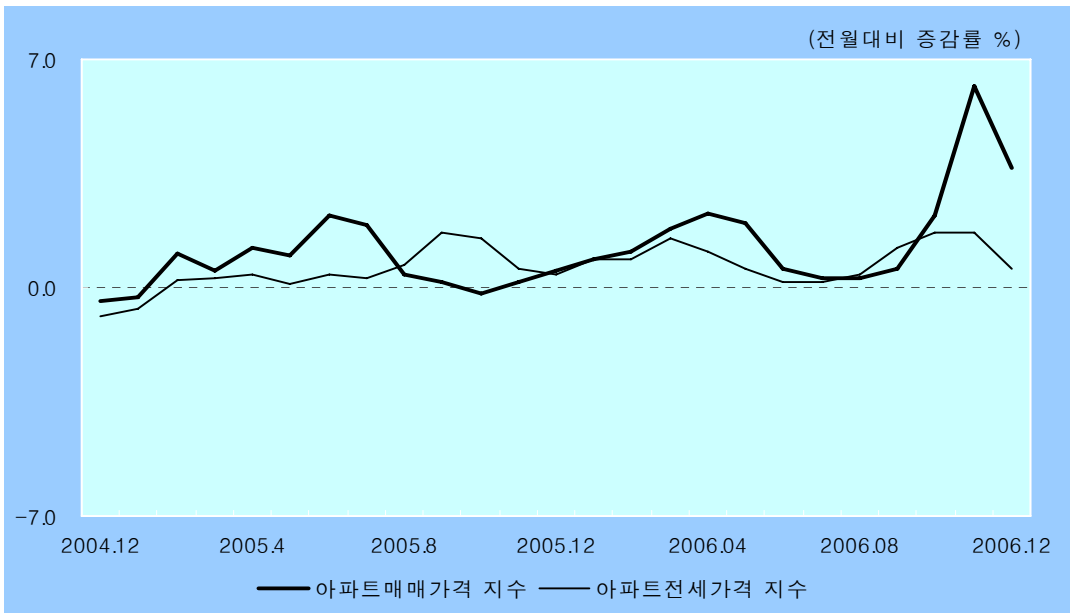
- 2006년 12월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0.6% 상승하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11월에 비해 상승률은 둔화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0.6%, 강남은 0.5% 상승하여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0.1%p 높음
- 구별로는 중랑구(1.3%), 강남구(1.2%), 중구(1.2%), 성동구(1.1%)에서 1.0% 이상의 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광진구(0.2%), 노원구(0.2%), 송파구(0.2%), 강서구(0.3%), 마포구(0.3%), 양천구(0.3%), 종로구(0.3%), 관악구(0.4%), 금천구(0.4%), 동작구(0.4%), 서초구(0.4%)에서 0.5% 미만의 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을 나타냄
- 12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지난 11월 대비 1.4% 상승한 600만원임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지난 11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3.8%로 45.0% 미만으로 하락함
- 이는 전국 평균 54.7%를 10.9%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9월:9.0%p 10월:9.1%p, 11월:10.1%p)가 점차 확대됨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51.2%, 강남은 37.6%로 강남이 강북에 비해 14.6%p 낮음
- 지난 11월에 이어 강남지역은 30%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매매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 KOSPI 지수 상승세 지속

##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승세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2006년 9월 이래 상승세를 지속함(10월말 4.71%→12월말 4.92%로 마감, 2005년말 대비 0.20%p 상승)
- 월초반 원화강세 등으로 일시 하락하였으나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기준율 인상 및 총액한도대출 축소,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반등함

## ■ CD 유통수익률 큰 폭으로 상승

- CD(91일) 유통수익률은 기준율 인상 조치에 이은 총액대출한도 축소 보도(12.29일) 이후 상승폭이 확대됨(11월말 4.678%→12월말 4.86%로 마감, 2005년말 대비 0.78%p 상승)
- 12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60%로,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p 인상한 상향조정치 4.50%에서 0.10%p 상승함

## ■ 장·단기 금리차 소폭 하락

-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가 지난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콜금리가 상승함 따라 12월말 현재 0.32%p로, 지난 11월에 비해 소폭 하락함
- 국고채 금리가 기준율 인상 및 총액한도대출 축소로 상승한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어 경기회복이 기대됨

## ■ KOSPI 지수 6월 중순 이후 상승세 지속

- 12월중 KOSPI 지수는 12월 중반 이후 해외증시호조, 연말배당기대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월말 미국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배당락이 반영되면서 소폭 하락하여 지난 11월 대비 2.25p(2.6%) 상승한 1,434.46p로 마감함
- 12월중 KOSDAQ 지수는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대비 16.02p(2.6%) 하락한 606.15p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보험세

- 12월중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강세와 연말 집중된 수출업체 네고 영향이 상충되며 929원~930원대의 보험세로 마감
- 월 초반에는 수출기업 네고물량과 역외 달러매도 영향으로 연중 최저 수준인 913원대 (12.7일)까지 하락했다가 월중·후반 들어 전반적인 달러 강세 및 바트화 절상의 영향 등으로 역외의 아시아 통화매도 현상이 나타나며 930원대로 상승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5일		
금 리	국고채(3년)	4.76	4.57	4.71	4.82	4.92	5.02	0.06
	CD(91일물)	4.68	4.59	4.58	4.67	4.86	4.95	0.20
	콜금리(1일)	4.49	4.48	4.48	4.49	4.60	4.62	2.39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27	0.09	0.23	0.33	0.32	0.40	-25.00
주 가	KOSPI <sup>2)</sup>	1,352.74	1,371.41	1,364.55	1,432.21	1,434.46	1,382.36	0.16
	KOSDAQ <sup>2)</sup>	572.83	600.42	586.1	622.17	606.15	583.58	-2.64
환률 (W/US\$) <sup>2)</sup>	961.5	946.2	942.3	929.5	930.6	937.3	0.12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1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 소폭 감소

- 1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5.0조원 증가함(11월말 +5.6조원 → 12월말 +5.0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규제강화(11.20일),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증가액을 다소 하회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부실채권 상각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 주식청약자금 대출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 2006년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40.9조원 늘어나 2005년 증가액 (24.9조원)을 크게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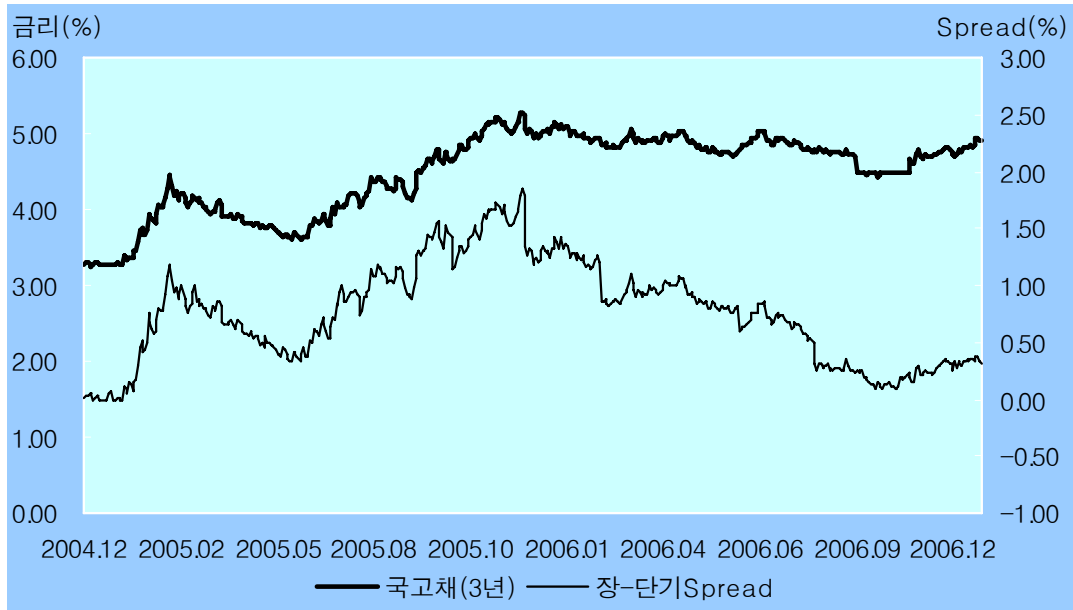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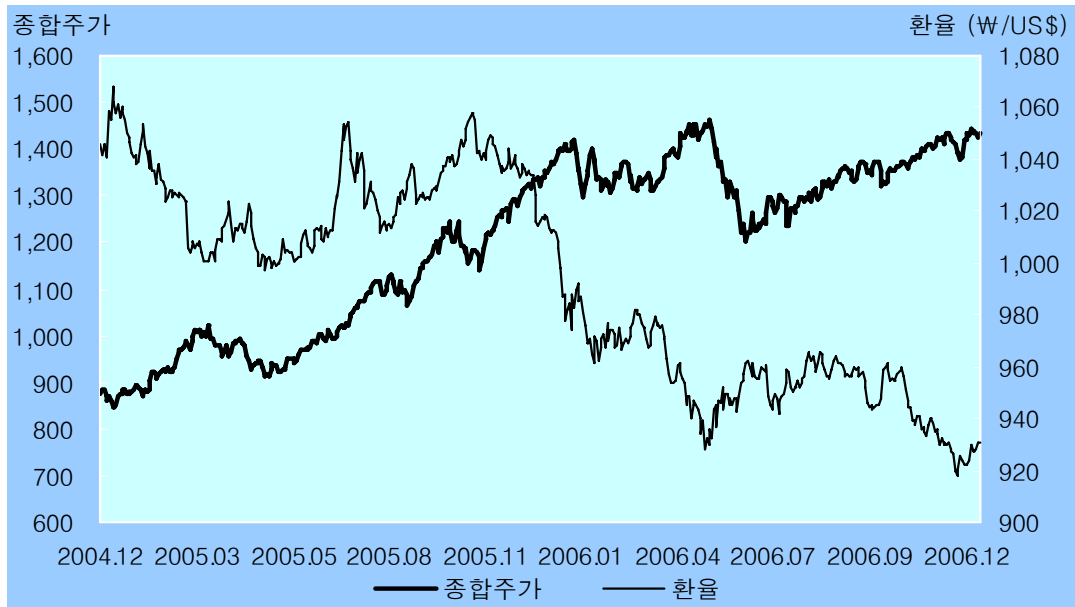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월말잔액		전월비
						2006년		
	12월	10월	11월	12월	11월	12월		
가계대출 <sup>1)</sup>	2.1	4.0	5.6	5.0	340.7	345.6	1.42	
주택담보대출 <sup>2)</sup>	1.6	2.8	4.2	3.2	213.9	217.0	1.43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0.5	1.2	1.5	1.7	125.2	126.9	1.34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1월말 서울의 금융기관 대출금 증가세 확대

- 11월말 서울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287조877억원으로, 지난 10월 대비 3조9474억원 (1.39%) 증가하여 11월 증가액은 지난 10월 증가액(+2조1349억원)을 상회함
-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2002년 10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 반영된 결과임

<표>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sup>1)</sup> 잔액 및 증감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

		잔액 <sup>2)</sup>					증감액
		2005년	2006년				2006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 금 이 행	전 국	612,255.5	662,591.0	972,121.2	680,074.3	692,188.3	12,114.0 (1.78)
	서 울	262,151.8	277,169.2	281,005.4	283,140.3	287,087.7	3,947.4 (1.39)

주: 1)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의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2) 원화대출금 기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어음매입 포함  
 3) ( )는 전월대비 증감률임

■ 11월말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 11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 잔액)은 지난 10월말(57.0%)보다 0.3%p 상승한 57.3%를 기록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 추이

(단위 : %, %p)

	2005년	2006년			증감	
	11월	9월	10월	11월	2006년	
					10월	11월
전 국	82.5	-	84.6	85.3	1.0	0.7
서 울	58.6	-	57.0	57.3	0.6	0.3

주: 예대율=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 · 업 · 동 · 향 |

서울 신설법인 수 지난 9월 수준으로 감소

## ■ 전국 신설법인 수 감소

- 2006년 12월중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11월 대비 3.9%(170개) 감소한 4,223개임
- 업종별로 지난 11월에 비하여 제조업(12.6%)이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25.6%), 서비스업(-4.0%) 등은 감소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7.3%, 제조업 20.9%, 건설 및 설비업 10.9%를 차지함
- 2006년중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0,512개로 지난 2005년(52,587개)보다 3.9% 감소함

##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11월 대비 6.1%(106개) 감소한 1,623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8.4%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냄
- 업종별로 지난 11월 대비 제조업은 12.4% 증가한 반면, 제조업을 제외한 건설 및 설비업(-40.3%), 서비스업(-3.6%) 등은 감소함
- 2006년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801개로 지난 2005년(20,939개)보다 5.4% 감소함

##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421개로 지난 10월 대비 53개 감소함
- 부문별로 보면 지난 11월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76.9%), 통신업(60.0%), 기타서비스업(47.1%) 등은 증가한 반면 교육서비스업(-28.6%), 부동산 및 임대업(-11.1%), 운수업(10.9%) 등은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 11월(85.2%) 보다 증가한 87.5%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국	4,388	4,197	3,451	4,393	4,223	-170	(-165)	-3.9	(-3.8)
서울	1,711	1,653	1,346	1,729	1,623	-106	(-88)	-6.1	(-5.1)
서비스업	1,442	1,424	1,143	1,473	1,420	-53	(-22)	-3.6	(-1.5)
제조업	432	94	103	97	109	12	(-23)	12.4	(-17.4)
건설 및 설비업	136	131	98	154	92	-62	(-44)	-40.3	(-32.4)

주: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서울 어음부도율 지난 11월과 동일

### ■ 전국 어음부도율 지난 11월과 동일

- 2006년 12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지난 11월과 동일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69개로, 지난 11월(234개) 보다 65개 감소하여 2006년 1월~11월중 평균 215개를 하회하고 199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임
- 업종별로 지난 11월 대비 제조업(87개→60개)과 건설업(52개→31개), 서비스업(88개→70개) 등 대부분이 감소함
- 2006년중 전국 어음부도율은 0.02%로 지난 2005년(0.04%)보다 0.02%p 하락함

### ■ 서울 어음부도율 지난 11월과 동일

- 2006년 12월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지난 11월과 동일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11월 보다 16개 감소한 58개이고, 2006년 상반기 평균(76개)을 하회함
- 2006년 12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16개, 지방은 49개 감소(160개→111개) 각각 감소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4.3%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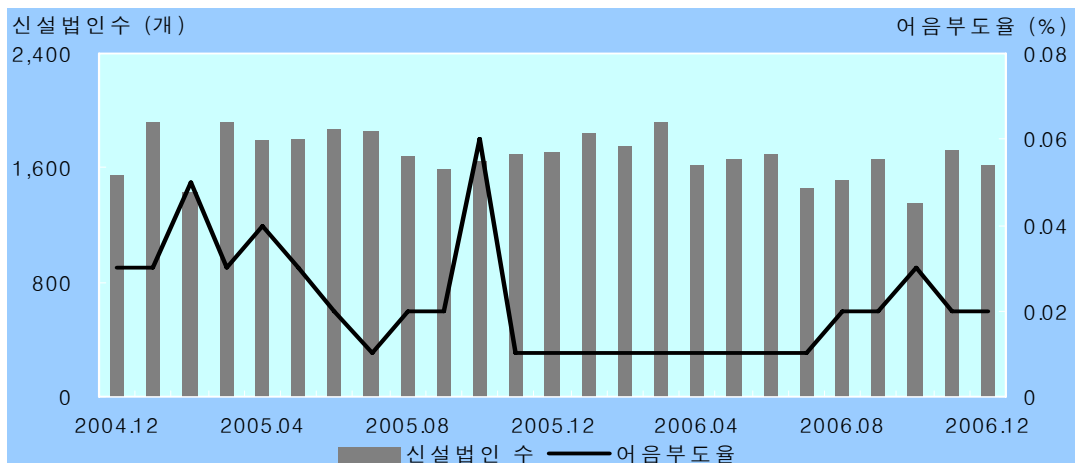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5년	2006년				전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4	0.03	0.03	0 (0.01)	0.00 (33.33)
전국 부도업체 수	256	228	181	234	169	-65 (-87)	-38.46 (-51.48)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3	0.02	0.02	0 (0.01)	0.00 (50.00)
서울 부도업체 수	88	76	72	74	58	-16 (-30)	-27.59 (-51.72)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2006년 월간 최고의 평균보증금액

## ■ 건당평균금액의 상승세 지속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2월중 1,081건, 39,401백만 원으로 지난 11월 대비 건수 3.0%, 금액 1.3% 감소함
- 연말 및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조기 소진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보증공급 추세를 지속하여 전월 수준을 유지함
- 기업체별 평균보증금액이 꾸준히 30백만 원을 초과하여 당월 2006년 최고의 평균보증금액을 달성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건수	2,767	1,038	1,171	875	1,115	1,081	-1,066	(-34)	-60.9	(-3.0)
금액	32,168	30,848	39,789	27,577	39,923	39,401	7,233	(-522)	22.5	(-1.3)
건당평균금액	11.6	29.7	34.0	31.5	35.8	36.4	24.8	(0.6)	213.8	(1.7)

주: ( )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기타업종(운수업)의 비중 감소

- 2006년 12월의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지난 11월과 비교하여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이 5.2%p 증가하였으며,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운수업)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기타업종(운수업)의 비중이 4.2%p 감소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24	429	207	249	72	1,081
비율	11.5	39.7	19.1	23.0	6.7	100
금액	7,904	15,235	4,585	7,320	4,357	39,401
비율	20.0	38.7	11.6	18.6	11.1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중기기업의 비중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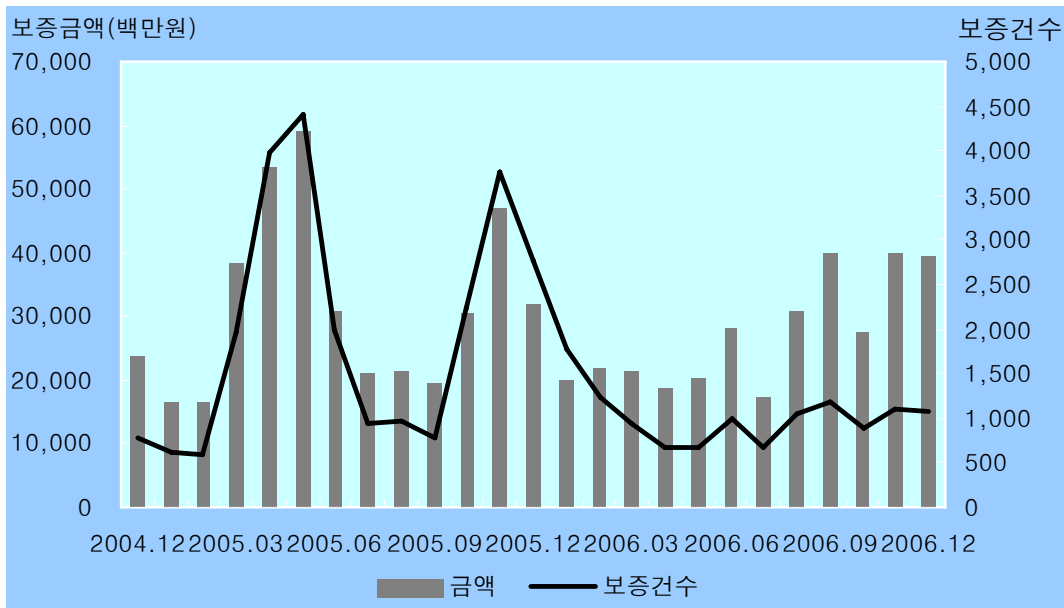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증가세를 보이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여 21.9%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중기기업의 비중이 2개월 연속 증가하여 7.5%를 보이고 있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6.10	2006.11	2006.12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787	1,000	973	-27
	비율	89.9	89.7	90.0	0.3
	금액	20,358	28,083	27,835	-248
	비율	73.8	70.3	70.6	0.3
소기업	건수	67	84	78	-6
	비율	7.7	7.5	7.2	-0.3
	금액	5,884	9,323	8,613	-710
	비율	21.3	23.4	21.9	-1.5
중기업	건수	21	31	30	-1
	비율	2.4	2.8	2.8	0
	금액	1,335	2,517	2,953	436
	비율	4.9	6.3	7.5	1.2
합계	건수	875	1,115	1,081	-34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7,577	39,923	39,401	-522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전국 수출입 지난 2005년 대비 증가

## ■ 전국 수출 지난 2005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

- 2006년 12월중 전국의 수출은 지난해 12월 대비 12.1% 증가한 29,174백만 불로, 지난 1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를 지속함
- 2006년중 전국의 수출은 지난 2005년 대비 14.6% 증가한 3,259.9억불로, 2005년 (12.0%)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함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32.9%), 선박(24.7%), 반도체(23.5%), 자동차부품(21.6%), 철강제품(16.8%), 자동차(11.5%) 등 대다수 품목이 고루 호조세를 보임

## ■ 전국 수입 지난 2005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

- 2006년 12월중 전국의 수입은 지난해 12월에 비하여 12.1% 증가한 27,525백만 불로, 그동안 급증세가 10월 이후 점차 둔화되었다가 소폭 상승함
- 2006년중 전국의 수입은 지난 2005년 대비 18.4% 증가한 3,093.3억불로, 2005년 (16.4%)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함
- 용도별로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등 원자재(22.9%)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시현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5,632	27,293	29,657	28,054	30,661	29,174	3,542	(-1,487)	12.1	(-5.1)
	수입	24,186	27,037	27,709	25,639	26,763	27,525	3,339	(762)	12.1	(2.8)

주: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무역협회

※ 무역협회에서 제공되는 지역별 수출입 12월 통계자료의 발표가 2006년 수출입에 대한 확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작업으로 2007년 2월 22일로 연기됨에 따라 <서울경제> 당월호에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